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10	05. 17	05. 24
대 표 기 도	정환영 형제	최상우 형제	장래황 형제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최상우 형제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5월 축복 인사 :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세요!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4. 브레멘 지역 청년연합 찬양집회 - 14일(목) 오후 3시 한민교회에서 모입니다.
5. 나눔의 시간 -경아, 효섭 Steibauer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오서진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3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어린이주일

입례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Gemeindelied	-----	다같이
기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127 : 1 - 5(구p898) (Psalm 127:1~5)	김정규 형제
특별찬양 Sonderlied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자녀는 여호와와의 기업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살아계신 주, 눅22:19~20	담임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학, 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자녀는 여호와와의 기업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양육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헛되다

시편 127편 1~2절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가정과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2. 자녀는 여호와께 속한 기업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하며, 말씀과 훈계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3.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다

자녀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된 존재입니다. 화살처럼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며,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논해보세요.
2. 자녀를 하나님의 목적에 양육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